

제42회 목사 · 장로 기도회

현금 100만원, 고급 자전거, 홍계 간장 등 풍성한 선물로 협력 넘쳐

총회 임원회(총회장 박형진 목사)가 주관하
여 진행한 제42회 목사, 장로기도회가 지난 5월
23일(월)~24일(화)에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
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하리라”였으며, 성남장대교회 오인호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등록과 숙소 배정을 마치고
3시30분에 시작된 개회예배는 총회장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기도회의
서막을 열었다.

4시30분부터 시작된 기도회는 총회부흥사연
합회가 주관하였다. 부흥사연합회 회장 류현욱
목사(익산동명교회)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
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어진
특별기도는 나라와 민족위해, 한국교회위해, 개

척교단과 상비부서를 위해, 교단산하기관과 협
의회위해, 노회와 전국개척교회를 위해, 세계평
화를 위해, 코로나 종식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
었다.

저녁집회에서 강사 오인호목사(성남장대교
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을 향한 길”이
란 제목으로, 새벽집회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
지라”는 제목으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했
다. 또한 복음가수 최인혁목사, 유남규목사, 김
광현전도사가 각각 찬양으로 섬기었다. 한편 둘
째 날 오전에 모인 노회장 서기 워크숍에서 총
회장 박형진 목사는 신임 노회 장들에게 취임
패를 전달하였다.

제42회 목사, 장로기도회에 등록자 모두에게
풍성한 선물을 증정한 것이 동원을 독려한 동인
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회장 박형진 목



사와 유남규목사(여울림교회)가 홍계 간장을,
개혁공보 부사장 박경남목사(중심교회)는 현금
1백만 원을 협찬하여 1등 500,000원, 2등
300,000원, 3등 200,000원을 추첨을 통하여
기쁨을 나누고 박만진목사, 윤서구목사, 김정호
목사, 박찬섭목사 경서노회, 개혁공보사가 자전

거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쾌적한 장소와 숙식,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협찬하신 개인, 교회, 기관, 협의회에 감사하
며 교단의 회망을 보았다고 한목소리로 평가하
였으며, 다음 달 제주도 전국교역자수양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마감하였다.

총회 임원 및 정치부 연석회의

노회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인하고 방향설정



개혁총회 제106회기 총회장 박형진 목사는 지
난 5월 23일(월) 오후 5:30분 홍익대학교 국제연
수원 2층 회의실에서 임원 및 정치부 연석회의를
열었다.

정치부장 이경근목사(평안교회)의 기도
록 시작된 회의에서 가칭 전북중앙노회의
설립의 건에 대하여 토의하고 결의하기를
첫째, 전북동노회에 분란을 조장하거나 노
회원 유인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이며 노회
명을 임원회에 맡기고, 둘째, 총회장의 지도
와 권면을 따라 총회기준 서류를 제출한 후
노회설립절차를 정상적으로 따를 것이며,

셋째, 전북 동노회의 상회비 조정은 재정부로 이
첩하기로 하였다.

전북중부노회장 정완득목사(성인교회)의 기도
로 폐회하였다.

전북연합회 활동 개시

코로나 19의 긴 휴면에서 깨어나, 연합사업 모색

개혁교단 전북연합회 회장 이부교목사(반석
교회)는 지난 6월 2일(화) 오전 11시 전북개혁신
학원 회의실에서 소위원회회를 소집하고 지난 과
정을 돌아보며 앞날을 결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회장이 인도한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에서 상
임부회장 김종봉목사(낙원교회)가 기도하고 이
부교목사는 디도서2: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
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선포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부회장 진상운목사(예bene셀교회)의 기도로
서 진행된 회무에서 차기 회의 일자와 장소를 7
월13일 11시 전주낙원교회당(김종봉목사)으로
정하는 한편 연합회가 회원의 친목도 중요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연합 사업을 연
구하고 개발하여 시행하지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다음 회기부터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제106회기 총회 준목고시 성료



본 교단 제106회 총회(총회장 박형진 목사) 고
시부(부장 류현욱목사)는 지난 6월 13일 총회개
혁신학연구원 서울 캠퍼스에서 준목 고시를 시
행하였다.

고시부는 지난 5월19일(목) 전북개혁신학연
구원에서 응시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특강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고시에 앞선 개회 예
배는 고시부서기 유남규목사(여울림교회)가 인
도하였다.

중경총회장 임종학 목사(총회개혁신학 연구원
원장)가 기도하고 경중노회장 이철영 목사(은혜
로교회)가 요한14:25~27말씀을 봉독한 후에 박
형진 목사(새은혜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중경총회장 강대민 목사(성현교회)와 이경근

목사(평안교회)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고시부 서
기 유남규 목사가 광고하고 고시부장 류현욱 목
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고시는 첫 시간 교회
사 시험 후에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정치, 조직
신학, 그리고 면접으로 고시일정을 마치고 사정
에 들어갔다.

고시 부원들은 이미 제출한 논문, 주해, 설교의
평가성과와 필답고사의 성적, 그리고 면접 결과
를 종합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 결과 응시자 전
원합격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합격자 발표에 이은 폐회 예배는 고시부장 류
현욱 목사가 인도하였다. 한편 이날 응시자는 전
북동노회 3명, 전북중부노회 4명, 경기노회 3명,
경서노회 1명, 총 11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
였다.

목회서신

섬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천국 최전방에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시는 목사님, 그리
고 그 옆 지기로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사
모님!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쉬셔야 합
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숨을 돌리시고
흐르는 땀을 닦아 땀 섬의 장을 마련했습
니다. 안심하시고 오세요. 탐라도! 하나
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천혜
의 섬터가 그곳이거든요. 예수 농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심고 또 김을 매시느라
잔뜩 굵은 허리를 좀 펴고 쉬지 않으실래
요? 시원한 바닷바람에 흐르는 땀을 말
리며 좀 쉬셔야 추수마당에서 알곡을 창
고에 거둬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 3년 가까운 세월동안 제대로 숨
도 쉬지 못하고 혹사당한 심신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할 아주 요긴한 시간
에 마련한 섬의 장입니다. 참 아름다운
산천에 바다까지 어우러진 이런 경관은
제주도가 아니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
관! 그 자체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한 밤
이러면 별로 일 텐데 함께 싸우는 전우
들, 더불어 일하는 품꾼들과 함께 하는 3
박 4일이기에 더더욱 좋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지난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느꼈던 아
쉬운 점을 이번 수양회가 충분히 채우고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만하
면 찾아오는 것이
탈진입니다. 쉴어
지기 전에 쉬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거든요. 깨어진 유리그릇은
재활 불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금
이 가고 깨어지기 전에 보존하셔야 합니
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폈지
요. 그로인해서 그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
고 심한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맛대로 골라가는 선택 관광역시 기대해
도 좋다는 군요. 마라도에서 먹는 자장면
맛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먹거
리라고 다녀 온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마라도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
륙관광 코스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세 가지 목
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진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는 것입니
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목사부부라는 이유로 참아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련의 묵은 잔재
일랑 바다에 몽땅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한 동역자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관
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것
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행자들
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알
아가는 데 여행만한 것이 없거든요.

셋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많은 것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
회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하게 전
도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
어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
의 중심이라는 기상

성경강해



장영 목사
(신약학 교수)

오늘은 계시록 8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장에는 나팔재앙준비와 이어지는 네 개의 나팔 재앙이 차례로 나오고,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10장과 11장 부분은 요한과 증인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다.

먼저 나팔재앙의 준비부분인 8:1-5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일곱 번째 인봉부분이면서 나팔재앙의 준비

부분으로 서로 겹쳐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8:1 “일곱째 인을 폐할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는 구절은 일곱 번째 인봉재앙에 해당되지만 전혀 재앙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 시 동안쯤 고요(Silence)”란 표현은 두루마리 책을 봉인했던 마지막 인봉을 떼고 책이 열리는 짧은 순간을 연상시키며, 그때의 고요는 긴장감을 더욱 조성하여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가 삼삼치 않음을 암시해줍니다.

한편 천상의 찬양대는 밤낮으로 노래하고 있는데(계 4:8-11, 5:11-14), 유대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기도소리가 잘 들리도록 찬양대는 특별히 침묵한다는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합 2:20; 속 2:13; 암 8:3; 습 1:7).

그렇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후, 8:2에는 요한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3-5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늘로부터 응답되지를 보여줍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러지면, 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후 하나님의 응답으로 천사가 인했던 마지막 인봉을 떼고 책이 열리는 짧은 순간을 연상시키며, 그때의 고요는 긴장감을 더욱 조성하여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가 삼삼치 않음을 암시해줍니다.

한편 6장에서도 인봉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 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동기는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6부터 나팔재앙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는데, 사도 요한은 나팔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모든 악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8:6-7의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을 간단히 요약해본다면, (불신 세계에 대한 경고조의 심판으로서) 첫째 나팔의 재앙은 땅에 관련된 것이고,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에 관련된 것이며, 셋째 나팔의 재앙은 물에 관련된 것이고, 넷째 나팔의 재앙은 천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편, 이 재앙들은 각 대상의 삼분의 일(1/3)에만 심판이 가해지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으로 진노 중에서도 공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8:13에서 독수리는 나머지 세 나팔 재앙들이 남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와 화

가 있으리라”라고 부르짖는 경고의 소리는 나머지 세 나팔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9의 둘째 나팔의 ‘불붙는 큰 산’의 예시적(豫示的) 성격은 예레미야 51:2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는 구절을 반향하고(echoing)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시록에 서는 성도를 압박하는 세상의 도성인 바벨론을 ‘불타는 큰 산’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17~19장에서 클로즈업(close-up)되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짧은 상징적 묘사는 17~19장의 확대된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 차원의 ‘원거리 촬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정



박형진목사(총회장, 새은혜교회)
5월 23일(월) 목장기도회 설교
5월 23일(월) 임원회 및 청자부
6월 7일(화) 동서노회 설립예배 설교
6월 13일(월) 준목고시 설교



임종학목사(증경총회장, 재언교회)
5월 23일(월) 목장기도회 축도
6월 7일(월) 동서노회 설립예배 축도
6월 13일(월) 준목고시 감독



류현옥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5월 13일(금) 전북개혁신학원 야외유치 참여
5월 19일(목) 고시부 세미나 예비모임에서 설교
5월 23일(월) 전국 목장기도회 강사로 말씀 증언
5월 28일(토) 전주 낙원교회 임직 예배 안수기도



황호관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5월 23일(월) 목장기도회 환영사
5월 23일(월) 청자부의 참석
6월 7일(화) 동서노회설립예배 권면



정완목사(증경총회장, 성인교회)
5월 13일(금) 전북신학원 야외유치
5월 23일(월) 목장기도회 특별기도
5월 23일(월) 정치부 회의 참석



이경근목사(증경총회장, 평안교회)
5월 16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스승의 날 행사 설교
5월 19일(목) 준목고시 환영 격려사
5월 23일(월) 목장기도회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
5월 28일(토) 낙원교회 임직식 설교



김정호목사(서기, 한소망교회)
5월 23일(월) 목장기도회 예배인도
5월 23일(월) 임원회 정치부 사회
6월 7일(화) 동서노회 설립예배 인도



김종봉목사(부서기, 낙원교회)
5월 28일(토) 낙원교회 임직식
5월 23일(월) 목장기도회 새벽예배 인도
5월 23일(월) 임원회 참석



유남규목사(회의록부서기, 어울림교회)
5월 19일(목) 준목고시 특강
5월 23일(월) 임원회, 목장기도회 특송
6월 13일(월) 준목고시 시험 주관



박만진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5월 19일(목) 준목고시 특강 참석
5월 23일(월, 화) 목장기도회 주관
6월 22일(목) 임원회
6월 7일(화) 동서노회 설립예배 축사

조직신학

인간 이해하기 9.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미친 직접적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본능 또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객관화해서 옳고 그른 것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인 자의식(Self Consciousness: 양심)이 후천적으로 생겼다. 그러나 이 자의식 역시 인간의 타락이 심화되면서 왜곡되거나 변질하여 인간은 양심을 짓밟아 버리고 옹고집을 고수하는 존재가 되어갔다.

둘째 창세기 3:19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에 근거할 때 아담은 범죄하는 순간 육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육체적 죽음을 겪게 되었다.

셋째 에베소서 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에 근거할 때 아담은 범죄하는 즉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넷째 창세기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

식을 낳을 것이며...”와 창세기 3:17, 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에 근거할 때 남자와 여자의 사역상 변화가 발생하였다. 아담은 식생활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하며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 더하여지게 되었다.

다섯째 창세기 3:16 이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에 근거할 때 여인은 언제나 남편을 사모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사모한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남편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출산 후에 거동이 전과 같지 않게 불편한 상황에서 남편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남녀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가 시작

된 것이다.

여섯째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결과는 자연계에도 미쳤다. 창세기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에 근거할 때 자연은 아담의 땀 흘리는 수고로 먹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도 비옥한 토지가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8:19-22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을 품성화한 구절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자연도 저주에서 풀려나 환경 오염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직접적인 결과들이 주어지면서 그의 생물학적 후손으로 출생하는 인류 역시 완전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의 저주가

운데 원죄를 지니고 출생하게 된 것이다.

완전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정리해 보자면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는 아담의 죄가 직접 전가되어 육체적으로 필연적으로 주는 존재이며, 죄의 성품은 간접 전가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출생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원죄를 지니고 죄인으로 출생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완전타락한 인간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박형진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2,900,000	전기원	50,000	최현일	50,000
총회신학교	2,500,000	박경남	3,000,000	이하종	50,000
박 형 진	1,000,000	꿈꾸는교회	400,000	김해수	50,000
경기 노회	600,000	류현옥	300,000	벨렐교회	350,000
전북 노회	600,000	김일출	1,000,000	김종봉	300,000
전북동노회	600,000	박광식	350,000	김교회	50,000
전북중부노회	200,000	조강희	50,000	김정호	100,000
서울남노회	300,000	신연식	50,000	강대민	300,000
서울동노회	500,000	박연성	50,000	이경근	300,000
경기서노회	100,000	김선영	350,000	이부교	350,000
전남 노회	300,000	육한수	50,000	박숙희	50,000
남부 노회	100,000	박춘배	350,000	대한예수교장	350,000
박 성 욱	600,000	권병락	100,000	정완득	3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 會 改革公報

總 會

改革公報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지상설교

“북녘땅에도 문이 열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7-13절)



윤서구 목사
(중경총회장)

6월은 6.25 기억합니다. 72년 전 우리 민족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적 사건은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상황은 점점 어두워져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교회의 문은 닫혔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있고 북한 선교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 다윗의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고 우리는 열린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늦 문을 저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으리라” 하신 말씀(사45:2)대로 안타까운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친히 이루어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라델리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않았음으로 인해 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마음의 문이 열려야

남북의 문제는 이데올로기나 제도의 문제라고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뚤어진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했습니다(고후6:11-13). 하나님을 불신하면 사람도 불신하게 되며 불신은 편견과 다툼을 야기시켜 마음 문을 닫히게 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대의를 그르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계3:20). 지금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는 인간의 마음 문은 열릴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 우리에게 남북통일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휴전선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2. 기도의 문이 열려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문은 두드릴 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황금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들뜬 상태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함으로 위기가 변하여 민족의 영광이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늘 간구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천만 기독교인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 마음을 합하여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할수만 있다면 이 민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믿음의 문이 열려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전도여행을 하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행14:21). 믿음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문은 주 안에서 열릴 때만이 의미가 있고 복된 것입니다(고후2:12).

몰락해버린 공산주의를 아직도 옹호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평등을 회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골4:3). 마음의 문, 기도의 문, 믿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현장르포



정완득 목사
(중경총회장)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리라.”(삼상7:12) 얼마나 소망 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인가? 여기 개혁신교단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실지를 회복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선언하여 영광을 돌렸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막아 주셨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총회장은 회복되어 은혜롭게 진행하는 교단을 꿈꾸고 있음



제42회 목사·장로기도회에 다녀와서

기도회였다고 평가한다.

먼저 감사한 것은 추진력과 배려심을 가진 총회장님과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진 그리고 사무총장 외에 많은 협찬과 경품들로 도움을 주신 그야말로 교단을 사랑하는 여러 교역자님과 장로님들께 중심의 감사를 드린다.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가 있었기에 성대하게 이루어진 기도회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일상이 파헤쳐졌고 새 정부가 새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열린 기도회에 다녀온 뒷얘기를 남겨 두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어본다.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기도회이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더 빈가웠고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했던

표현할 수 없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임에도 언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았는가 싶고 그 때 너무 좋았다. 이번 기도회에 참석한 한 분들이 다른 해에 비교하여 월등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해 주신 목사님들과 특히 강사로 수고해 주신 오인호 목사님의 현장감 넘치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실례들과 기도의 응답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은 간증은 모든 목회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되었고, 나를 돌아볼 기회가 된 점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목회를 해나가고 있음을 듣고 새로운 다짐과

탁하고, 총회장과 유남규 목사가 함께 간장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임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을 이루었고 총회장과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홍보에 감동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경품으로 기증하면서 등록 숫자가 늘기 시작했다는 기도만 아니라 경품의 위력을 실감했다는 관계자들의 후일담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그날이 왔다.

등록을 시작해서 숙소를 배정하는 모든 일들은 아주 순조로웠다. 질서 정연했고, 협력하는 분위기는 숙연하기까지 했으며,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좀 아쉬운 것은 임원뿐만 아니라 달리 조직된 본부 요원을 배치하여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복음가수 김광현 전도사의 인도로 진행된 찬양의 시간은 잔잔하게 그러

나 힘있게 흐르는 깊은 강 같은 은혜가 있어 좋았다.

항상 그러하듯이 총회장의 메시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간결하고 뜨거웠다. 곧이어 진행된 기도회는 총회부흥사연합회에서 주관하였고, 회장 류현옥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7분의 특별 기도자가 나서서 제목별로 가진 기도의 시간은 전형적인 장로교 스타일의 기도 그 자체였다. 이 시간 만이라도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을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저녁 집회와 새벽기도회는 특별강사로 초빙된 창대교회 담임 오인호 목사의 별미와 같은 말씀으로 넉넉한 양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평가가 들린다. 철저한 준비, 군더더기 없는 진행, 혼연일체를 이룬 목사 장로 기도회는 다음 해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집회였다고 후한 점수들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떤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감히 올리는 바는 개체교회만 세워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노회와 총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것이라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총회와 노회,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여지는 모든 집회나 행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일이라는 생각과 신앙이 바른 행위라고 믿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총회신학 연구원 후원 현황 (2022년 1월)
박형진 총회장-찬양반주기 / 전국장로연합회-50만원
무명-100만원 / 안산 새은혜교회-10만원

어려움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직원일동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복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 접 수 : 2021년도
-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 문의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가민간자격증 교육지원 가이드

150여개 민간자격 & 30여개 국가자격과정

유망/인기 자격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 최고의 교수진 - 일타강사
- 고품질 콘텐츠 - HD 고화질 / 강의 품질
- 비대면 교육 - 모바일 / PC 수강가능
- 커리어 관리 - 취업경쟁력 제고

레스큐자격교육센터 - 국가 / 민간자격 총 180여개 과정 오픈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최고의 교수진

- 전 국가자격과정 - 최고의 강사진 보유
- 교재구매시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 합격율을 높이는 최고의 교재구성

레스큐자격교육센터만의 혜택 (민간자격증)

- 동영상 수강료 / 시험 응시료 전액 무료 지원
- 100%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자격증 취득가능
- 자격증 신청시 - 상정형 / 카드형 제공

레스큐자격교육센터의 민간자격과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 과정 정식등록
- 2021년 최신 제작된 HD 고화질 강좌
- 비대면 교육 - PC / 모바일 강의 수강 및 검정가능
- 각 분야별 인지도 높은 전문협회 자격증
-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

(사)한류문화예술진흥원 - 레스큐자격교육센터 www.rescuecerti.com

서울종로A자격증센터
센터장 박 만 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195-11, 임호빌딩 801호
010-6358-0191 / pmj0675@naver.com

재 언

참 안식을 맛보고 누리자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에 달고 산다.

그래서 매일 격무에 시달리다가 쓸 어지는 과로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기에보가 무색해졌고 미세먼지가 극성이어서 숨쉬기마저 어렵다는 하소연도 심심치 않다. 수질오염에 토양오염이 겹치면서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명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엄살은 아니지 싶다. 또한 좋은 인간관계,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예전처럼 간단치가 않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과 심한 스트레스가 이전과 전혀 다른 피로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현주소이다.

목회자라고 예의겠는가? 목회자들은 변화된 시대풍조에 맞추다 보니 과도한 피로감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인자라 참 안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고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다.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우리를 향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가?

우리는 매년 총회차원의 전국교역자 하계수양회를 교육부 주관으로 갖고 있다. 금년에는 6월20일(월)부터 23(목)일까지 3박4일 동안 바다 건너 산 좋고 물 좋은 탐라국에서 갖게 되었다.

전국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모처럼의 자리니 만큼 참으로 뜻깊고 보람 있는 아름다운 휴가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 안식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은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은 거룩한 의무요, 특권이자 구원의 증표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릴 안식은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이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후에 안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안식을 얻으며 누리며 영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휴식, 원기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의 원어인(누아흐)는 쉬다, 내려앉다. 휴식을 취한다는 뜻이 있으며, 또 허랑 방랑과 전정이 종결되고 마음과 몸이 함께 평안을 이룬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쉬바트)는 쉬다, 그치다. 휴식의 날로 지키다 등의 의미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뜻을 품은 말이 안식이다. 결국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음이다. 그러한 참 안식을 누리는데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참 안식은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참 안식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기쁘게 누리야 하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온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불평과 고통이 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면서 그 안식을 잃은 피곤한 실존이 된 것이다. 인간이 왜 불순종 했는가? 탐욕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누리야 할 영원한 안식을 잃었다. 안식을 잃은 인간에게 참 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 안식의 삶을 누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주셨다. 이제 성도는 안식의 삶을 누리기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목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와 함께 멍에를 메자. 거기에 참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 길지 않은 수양회 기간에 참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자.

광야의소리

황호호 목사
(경경총회장, 본보 사장)

대한민국 축구 대표 팀과의 평가전을 치르고 일본으로 건너간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일본팀과의 평가전을 마치치고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네이마르에게 일본 기자가 “한국 팀에게 5:1로 이겼고 일본에서는 1:0으로 이겼으니 일본 팀이 강팀임이 증거 된 것이 아니냐?”는 투로 물었다.

이에 네이마르의 대답이 통쾌하다. “너희에게는 손흥민이가 없지 않아?”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 팀은 아시안인 최초로 유럽축구 5대 리그에서 득점왕에 등극한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팀이다. 아무리 자랑을 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소니가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되어 황금 축구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초청칼럼

문용길 목사
(한미음교회 원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다. 기대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싶다. 육에 티끌까 사람을 기용하는 것을 보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즈음 가장 민망한 것이 지도자들의 행태요 그 구별 없이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목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와 함께 멍에를 메자. 거기에 참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 길지 않은 수양회 기간에 참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자.

그래서 우리는 한 마디로 지도자 부재시대를 그대로 겪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의 책임도 크고, 앞선 지도자들의

3류 감독이 만든 세계 1위 선수 소니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 여행을 한 것과 같다”고 평가한 유명 축구선수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소니가 그런 엄청난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전전전이 라는 말이 있다. 이 말대로 한다면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어야 한다. 소니의 아버지는 스스로를 3류 선수라고 평가절하한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소니의 아버지 손용정 감독은 지금도 축구 끝나무렵을 조련하는 일을 위해서, 제2, 제3의 소니를 길러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그 아버지는 어떤 인물에게 3류 감독으로서 세계 1위의 선수를 만들어 냈을까?

옛 어른들은 “호박순은 돌려놓기나 름이라” 했고, 흠여급기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갖 태어난 아기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는 기록이 있다.

어린 애기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모험을 한 어머니의 혜안이 불의의 사고로 축구선수의 꿈을 접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인가? 어린 아들에게

서 축구선수의 가능성을 보고 혹독하게 다룰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다.

그것만으로 되는 일이라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어린 아들을 일찍이 해외로 내 몰아 유럽축구를 몸배게 하고 냉엄한 경쟁세계에서 성장하게 했다.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스스로를 단련한 사실은 실로 눈물겨운 자기관리요, 훈련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 손으로 역어낸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은 누구나 한번쯤 읽어 볼만한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그 책은 손이가는 대로 한번 써본 그런 책이 아니다. 소니의 아버지는 1년에 100권 이상의 책을 읽어 소양을 쌓아가는 실로 공부하는 아버지이다.

책을 읽어도 보통 그냥 권수 채우기 위해서 읽는 다독가가 아니라 정독을 한다.

손에 든 책은 세 가지 색연필로 줄을 그어가며 삼독을 할 뿐만 아니라 독서노트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읽어가는 아주 특이한 독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고백에서 그

분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 아버지인가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노력들이 아들 소니를 위한 즐거운 작업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세계최고 선수로 우뚝 섰음에도 동료선수들은 물론, 경쟁 팀의 선수들과 감독들까지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계적인 인성을 갖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전에 토트넘의 감독으로서 소니를 경험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인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된 계기를 “부모님을 만났던 뒤 손흥민의 인성이 좋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솔직히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아주 어린 팬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세심한 배려며, 넘어진 선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매너, 인터뷰마다 동료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뻐하는 멋진 자세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겠는가?

더욱 고마운 것은 그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애국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런던 축구 경기장에 등장하는 태극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

빛은 분명 대한민국 대표선수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이다.

16세의 어린 소년으로서 태극마크를 달고서 15년 동안, 한 걸 같이 자랑스러운 한국축구대표선수로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다.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아버지로서, 축구선생으로서 고단한 매니저로서 최고,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손정웅님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내 뒤로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될지 모르니, 눈 덮인 들판이라도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는 말을 “짧지만 너무도 큰 말이라 매일 곱씹는다며 교육자에게 이보다 올바른 지침이 되는 말은 없다. 부모든 선생이든 코치든 감독이든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말하는 그 훌륭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명품으로 자라난 소니의 장래를 응원하며 오래 오래 다치지 말고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있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베풀어 한 마디 <흥민아! 넌 월급이 아니야>를 항상 기억해 주기를!

바로를 배우자

많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시대의 바로(아멘호테프Ⅱ/이집트18왕조) 왕이다.

이 두 사람은 400여년의 시간적 선 후가 분명한 만큼 선악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포한다.

그리고 그 선악의 특징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엇을 위하여 대응하여 사용했는가에 결론이 드러났다.

물론 요셉은 죄수의 위치에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대응되어 세상에 그 진가를 드러내지만, 두 사람 모두 다 혈통은 순수한 아랍혈통임은 틀림없다.

요셉을 등용한 바로 임금, 그는 어떤 인물에게 그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선택과 대응으로 나라의 안위를 결정짓는 용단을 내렸을까? 그래서 바로에 대해 나는 이런 생각을 펼쳐보았다.

먼저는 바로가 나라의 안위와 복지에 평소 고민하는 지도자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로는 태평성대가 영원히 지속되

리라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도자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때 암소와 이삭의 꿈을 상상치 않게 받아들여 온통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을 터이니 가히 이런 집작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다음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신하들과 박사들과 술객들의 힘과 슬기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육에 갇혀있는 죄수 그것도 히브리인, 바로 편에서 이방인 요셉까지도 불러 자기 앞에 세운다.

끝으로 바로 임금은 그 수많은 위대한(?) 이집트의 신들을 제쳐두고 히브리인의 신 옐로함 하나님의 계시에 남작 앞드려 귀기우려 듣고 선포한 순종과 계시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히브리인 사람 하나님의 대변자 요셉을 제이인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집트에 널리 선포한다.

“나 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는가?”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 나의 모든 백성들은 너의 명을 따를 것이다.” “너를 내가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지도자들은 이집트의 지도자 바로 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라던 이집트라는 제국의 실권자로 통치권력의 이양을 거침없이 실행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런 위치에 서면, 고집불통 독불장군이 되어 자신의 사명감과 나라의 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뿔 싸고 뿔개는 듯 이러한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바로의 이런 태도와 결단이 요구됨은 당연하고, 더구나 지금은 지혜와 명철을 겸비한 자들의 협력의 시대이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바로를 배우야 한다. 바로를 배우자. 바로를! 요셉을 세운 바로를 배우자!

전국교회예배안내

재언교회  담임 임종학 목사 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화산동27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	성현교회  담임 강대민 목사 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	덕소제일교회  담임 박민진 목사 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	평안교회  담임 이경근 목사 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장평2길 85 전화 010-9928-8218	광일교회  담임 장영광 목사 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
모악교회  담임 홍주일 목사 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	소망교회  담임 조신제 목사 14763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4-84 전화 032-346-1235 / 010-3727-9665	꿈꾸는교회  담임 황관 목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287번길 5 전화 010-6249-5982	남광교회  담임 최갑철 목사 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 010-3654-4191	낙원교회  담임 김종복 목사 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 2길 10 전화 010-2375-5937
화평교회  담임 박종윤 목사 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	새목장교회  담임 김만술 목사 13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회향로 375(상대원동) 3층 전화 010-8561-9192	중심교회  담임 박경남 목사 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97-11(민현동, 일산워터파크네사)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	벤엘교회  담임 박성욱 목사 14908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22, 서강프라자 2층 전화 010-9127-2010 / 031-311-0213	한빛교회  담임 임용태 목사 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 전화 010-5397-2627

장현심 자전 수필



수필가 장현심

자비량으로 교회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1931년은 참으로 어려웠다. 일본의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천황 신격화는 명백한 우상숭배였다. 이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에 아버지도 당연히 참여하셨다. 1938년 평양노회의 신사참배 반대결의안으로 교회와 경찰은 팽팽히 대립하게 되었다. 그 결의안은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회원의 노회 출석 금지, 신사참배에 굴복한 목사의 세례 거부, 신사참배 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우리 오빠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일본놈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조선의 아이들이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아버지는 동네에 학교를 세웠고 오빠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했다. 4학년까지의 과정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였다. 또 보통학교를 마치고 진학하는 '성진의숙'이라는 교육기관도 설립하셨다. 아버지와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맡겼다. 지방에서 모셔온 선생님들과 교회에 시무하는 분들이 우리 집에 머무셨다. 여러분들이 거

쳐 가셨는데 특별히 가까웠던 분은 이성권 조 사님과 정태준 조사님이다. 아버지는 그분들에게 급료를 드렸다. 정 조 사님 가족 모두가 우리와 함께 살았고, 이 조사님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시다. 교회를 지키겠다고 파난을 마다했던 그를 삼팔선이 막힌 이후에 허 큰 놈(김재연의 조카 별명)네 삼촌 김재연 아저씨를 시켜 월남을 시켰는데 후에 그분은 부산에서 돌아가셨다. 그 외에 일본군 장교 〈노무라 쇼이〉가 우리 집에 있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았다. 필심 언니의 말로는 그 사람은 집안에서는 팬터를 입지 않아서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리는 옷 자락 사이로 속살이 다 보여서 수시로 문틈으로 엿보았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식솔이 많아서 밥을 몇 그릇을 뚫는지 세다가 잊어버릴 정도였고, 언니는 방과 부엌을 들락거리며 몇 그릇을 더 퍼야 하는지 중계를 하였다. 각상을 차릴 때였으니 남자들은 모두 독상을 받고 작은 아이들과 젊은 여자들은 두레 반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을 당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던 집으로 왔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경찰에 불러가기를 반복했다. 그날도 경찰서에 잡혀가 취조를 받고 있었다. 일본 순사가 회유하다 못해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하며 칠판에 신사참배라고 쓴 뒤 그 밑에 '예'와 '아니오'를 표시하게 했다.

백사장에 묻은 성경

'예'라고 대답하면 당장 풀려나 집으로 갈 것이고, '아니오'라 답하면 매를 맞은 뒤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될 편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 침묵 속에 서로 버티고 있는데 〈노무라 쇼이〉가 마침 경찰서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참다못하여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은 긍정의 표시"라며 칠판에 쓰여 있는 '예' 자에 동그라미를 했다. 그날 아버지는 매를 맞지 않고 집에 오셨지만, 신자로서 평생 벗지 못할 마음의 멍에를 지게 되었다. 성도에게 순교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셨다. 평양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한다."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검거되어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다. 1944년도의 일이다. 1945년 해방이 되어 신사참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이념의 갈등으로 더욱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지주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은 무신론자이며 공산주의자인 무신계급의 표적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 체제를 벗어나려고 교회와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남하를 결심하였다. 남창면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구멍, 도지머리를 거쳐 학포리에서 배를 타고 나와 웅진의 뚝돌이란 곳에서 내렸다. 인가를 피해 백사장 길로 접어들었는데 저 앞에 인민군들이 오는 것이 보였다.

마주치면 검문과 몸수색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들킨다면 총살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다. 성경과 찬송을 모래에 묻고 태연히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멀어지자 아버지는 모래사장에 풀이 엮혔다. 구차한 모습을 위해 하나님과 교인 앞에 양심 부끄러운 짓을 하겠다고 자책하셨다. 모래밭에 성경을 묻은 것은 신앙의 양심과 지조를 묻은 것이라는 생각이어서 자신의 육신을 산 채로 묻은 셈이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는 과거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았다. 사진도, 글씨도, 글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살 뿐이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니 죽어서 천국에는 가겠지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문 후유증으로 자주 허리가 아픈 아버지를 위하여 엄마는 시루떡을 찌서 보자기에 싰 후 아픈 허리에 돌려드렸다. 그 떡이 식으면 다시 뜨거운 떡으로 갈아 대었다. 엄마 식은 온찜질이었다. 식은 떡은 우리 차지가 되었다. 입이 궁궁할 적엔 연제쫄 떡을 하려나 철없이 기다리곤 했다. 아버지는 1894년 8월 20일, 황해도 장연군 호남면 중평리 장주에서 태어나 인전 부평구 심장동에서 1978년 11월 23일 눈을 감으셨다. 지상에서 84년 3개월 3일을 사셨다. 이정화 작가는 〈그대로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에서 "내겐 아흔아홉 살씩 아흔아홉 번을 살아도 애 통한 내 사랑, 내 부모"라 하였다. 나도 그렇다.

선교

선교사 마포 삼열의 초기 족적(足跡)

마포 삼열(Samuel A. Maffett)은 1864년 미국 인디애나 주의 매디슨에서 태어나 청교도적인 엄격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1888년 당시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교로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시카고의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27세인 1889년에 미국 북 장로교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90년 1월에 척박한 땅 서울에 도착한다. 이 땅에 도착한 이듬해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험버트 선교사를 대동하여 평양으로 행한다. 별다른 교통수단이 전무 했던 당시인자라 말을 타고 6월 간이나 여행을 해야 했다. 마침 우기라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황주에서 강을 건너다 의사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다. 어렵게 평양에 도착한 마포 삼열 일행은 대동강 변의 여관에 투숙하였는데 그곳은 대동강 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로 알려졌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한문 성경 한 권을 주워다가 자기 방 도배를 했는데, 이후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여관을 만들었다니 우연치고는 기이하지 않은가? 최치량은 후에 예수를 믿고 마펫과 돈독하게 동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펫은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방 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기초를 놓았으니 이는 한국장로교회 태동과 발전에 남긴 커다란 족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 서북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선다. 성도의 수가 계속 늘어나 1899년에는 장대현에 새로 예배당을 세우고 자신이 제1대 담임으로 섬겼다. 장대현교회는 이후 남대현교회, 사창골교회, 산정현교회 등을 개척하는 모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특히 산정현교회 예배당은 마펫의 연보로 크게 지어졌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목회자 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교육에 힘쓴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 양성이 시급해지자 마펫은 평양 서문 밖에 약 6,000여 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평양신학교를 건립해 한국교회 신학 교육의 산실을 마련하고자서 1901년 가을 장대현교회 장로 방기창과 김종섭 두 사람으로 평양신학교의 문을 열었다.

6년 후인 1907년에 최초로 7인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한석진, 방기창, 김진주, 이기풍, 양진백, 서경조, 송인서이다. 1909년에는 재학생이 13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마펫은 1904년 평양신학교 초대교장으로 부임해서 24년간 교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일제 말, 신사참배문제로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많은 장로교회 목사들과 교역자들을 양성했으며, 오늘의 총신대, 고신대 장신대 등이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설립 된 것을 보아도 그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의 열매가 얼마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펫 선교사는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평양의 대표 교육 기관인 숭실중학교, 숭실대학, 송의여학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였으니 1903년 송의여학교를 세우고, 1918년부터 10년간 숭실중학교와 숭실대학의 교장으로 섬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교장직에 취임한 지 1년이 채 못되어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 기독교 학교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총독부는 성경 과목을 폐지할 것을 강요했지만 마펫은 성경만은 가르쳐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마펫은 평양 장덕학교를 비롯해 의주 및 황해도 일대에 110개 내외의 학교를 지원하는 등 교육 사업에 남다른 힘을 쏟아 오늘의 한국을 낳았다 할 것이다.

시론

북한 코로나, 생명(生命)은 살려야 한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없다면 평소 주장과 달리 4월 말 첫 환자 발생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달 8일에는 하루 40만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며 현재는 하루 10만명 정도의 발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한 달여 간 총 코로나19 발병 환자 수는 400만명에 육박하며, 감염 전문가들은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북한의 통계수치와 달리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나라다.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는 코로나19의 경과가 악화될 수 있지만 치료제조차 없는 북한 상황에서는 버디나무 잎을 삶아서 먹이는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을 2006년 당시에도 평양의대병원 교수조차도 근무 시간 중에 도토리묵을 주위 소화제를 만들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고사하고 일상적인약품조차 구비되지 못한 북한 상황에서는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보도하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채 100명이 안 되는데, 이는 북한의 기존 사망원인이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어서 코로나19로 사망해도 이들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계할 여지가 있다. 특히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의약품과 의료인프라가 낙후된 북한에서는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 이런 상황에서 WHO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정부도 백신과 치료제 지원을 북한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요청을 해오고 있지 않으며 북한 인민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반해 남한의 상황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면서 방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백신은 남아돌아 유효기간을 넘겨 폐기처분한다. 백신의 국내 대량생산도 이뤄지고 치료제도 17가지나 임상 승인을 받아출시를 앞두고 있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의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발사로 이에 응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NGO와 교회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염을 비롯한 공산정권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적이지만, 대다수의 인민은 우리 민족으로 향후 통일을 함께 이뤄낼 파트너이기에 이 두 집단을 구별해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휴전선을 맞대고 얼마든지 전염병이 남한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강 건너 불 보듯 보고만 있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뇌관이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리라 본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는 하나의 건강공동체임을 생각해 민간기관과 교회가 협력함으로써 북측에 필요한 인도주의적 의약품과 진단키트,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필자가 속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국제보건의료학회도 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과 한반도의료연합 등 보건의료NGO도 북측과 민간차원의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꾸준히 북한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국내 유수한 NGO와 교회들도 북한지원을 위한 자금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기에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살려야 한다. 생명(生命)은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명하신 명령이다. 더 늦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오후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송포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	<div><div>동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오후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30</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진로1길 14-3(동신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오후 삼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전동 718 이노파크라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	<div><div>디베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오후 : 오후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신연식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9-7 전화 010-5438-0811</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찬양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정완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2길 24-6(삼천동17가) 전화 010-7285-8291</div></div>
<div><div>동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오후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8:00</div></div></div><div>담임 김양석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천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8857 / 010-7221-5852</div></div>	<div><div>월드비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밤 예배: 1부 9:00, 2부 11:00 : 7:00 : 9:00</div></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성가네 전화 010-2301-0898</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3:30 : 오후 수요일 밤: 7:00 : 7:30 : 구역예배(금): 오후 7:30</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암로534번길 6-8(산성동) 전화 010-3722-9106</div></div>	<div><div>충율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오후 삼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김정용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오후 수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준호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가) 전화 (063)226-9111 / 010-9278-5653</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 3:00 : 오후 수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	<div><div>온누리사랑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14:00 : 7:00</div></div></div><div>담임 이혜동 목사</div><div>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반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오후 수요일 밤: 7:00 : 7:30 : 9:00</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곡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 2:00 : 오후 수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1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 2:00 : 오후 수요일 밤: 7:00 : 9:00</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

제106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6회기 총회주일은 2022년 1월 30일(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노 회				경 서 노 회				경 성 노 회			
											
박만진 목사 (덕소제일교회) 320,000원	박광식 목사 (꽃밭교회) 400,000원	이혜동 목사 (사랑은누리교회) 200,000원	박동혁 목사 (선한아웃교회) 150,000원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1,000,000원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340,000원	하예성 목사 (생명줄동포교회) 150,000원	신연식 목사 (디베라교회) 200,000원	박성욱 목사 (벨엘교회) 400,000원	김진석 목사 (소망교회) 50,000원	진인자 목사 (갈멜산교회) 50,000원	장성덕 목사 (호산나교회) 50,000원
경 중 노 회		서 울 남 노 회				서울동노회		전남노회			
											
이철영 목사 (은혜로교회) 150,000원	이충년 목사 (영복교회) 460,000원	강대민 목사 (성현교회) 400,000원	김선영 목사 (비전교회) 200,000원	박춘배 목사 (수원성심교회) 1,500,000원	문만호 목사 (양곡제일교회) 100,000원	김정웅 목사 (중울산교회) 250,000원	윤서구 목사 (임마누엘교회) 1,010,000원	서용진 목사 (상촌교회) 200,000원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전북중부노회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1,500,000원	최갑철 목사 (남광교회) 700,000원	김해수 목사 (예수촌교회) 150,000원	이부교 목사 (반석교회) 300,000원	박종운 목사 (화평교회) 240,000원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500,000원	유남규 목사 (아울림교회) 500,000원	정완득 목사 (성인교회) 520,000원	박숙희 목사 (동산교회) 150,000원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 총회장 박형진 목사
서 기 김정호 목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02)742-3538 팩스:02)742-3539

사진으로 본 제42회 목사·장로기도회

